

기획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10>

나고야 동네마다 문화를 꽃피게 하라

댄스·음악·연극...一人一藝 시민은 예술가

나고야=글·사진 윤현석 기자

◇ 줄 서서 책 교환하는 주민들=지난 2월 26일 찾은 나고야시 니시(西)구 조신초(淨心町) 문화소극장을 찾은 취재팀은 깜짝 놀랐다. 노인들과 아이들, 주부들이 이 소극장에서 매주 토요일 개최하는 책 교환 이벤트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소극장 내에 길게 줄을 서 있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30분에 번호표가 80번까지 나간 상태였다.

소극장 관계자는 “책 교환은 소극장이 개최하는 가장 큰 행사중에 하나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자신이 본 책을 내놓고 다른 주민들이 기부한 책을 내놓는다”며 “100~200엔 정도의 참가비를 받고 이를 소극장 내 도서관 구입비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나고야시에는 모두 16개 자치구가 있으며 이 중 13곳에 3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극장이 있다. 소극장 운영은 지난 1987년 설립된 재단법인 나고야시문화진흥사업단이 맡고 있다.

◇ 구체적인 계획 통해 문화도시 매진=이 재단의 예산은 연간 26억엔 정도로 전액 나고야시가 보조하고 있으며, 이 예산으로 소극장을 비롯한 24개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지정관리자 제도를 통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기업이나 NPO법인 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

재단에는 3명의 공무원이 시에서 파견돼 근무중이며 정직원 96명과 기간제 직원이 25명 등 모두 124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기관지로 ‘문화정보’를 매달 발행하고 있다.

나고야시는 지난해 2015년을 목표연도로 한 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를 통한 도시 개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문화 관련 종사자는 물론 예술가, 학예사 등이 모여서 작성했다. 산업과 디자인 등을 포함해 전체적인 시의 문화진흥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시설, 자원, 문화행성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으며 ▲시민 문화진흥 ▲예술문화진흥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중점 프로젝트 ▲과거 추진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4년 후 시설 설치 수, 프로그램 참여인원 수, 중점 공연 및 전시회 개최 건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목표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 문화정책의 핵심은 시민참여 증진=문화진흥사업단은 나고야시의 문화정책의 핵

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우선 시민들을 상대로 시설을 임대해준다. 사업단이 직접 관리하는 문화시설 중 2개의 시민갤러리, 댄스·음악·연극 연습이 가능한 16개의 연습실로 구성된 청소년문화센터 등이 그 대상이다.

2006년부터는 ‘자주 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만도 360개의 프로그램이 가동중이다. 이는 초기 50~60개에서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각각의 시설 관리 주체들이 프로그램을 조율·관리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사업단에 따르면 자주 문화사업은 ▲시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시민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예술가의 육성과 예술문화의 창조활동 지원 ▲예술문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발산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 주요 뮤지컬, 오페라 등을 공연하면서 오디션을 거쳐 시민들을 직접 배우, 무대기술자로 참여시킨다는 것도 특징이다. 대본, 연출, 연주 등은 전문문화예술인이 맡고, 출연자는 일반시민이 참여하면서 공연의 질은 물론 시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사업단 관계자는 “시민참여 공연에는 연극, 재즈, 음악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15회 정도 연습해서 본 무대에 올린다”며 “시민 출연자를 보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이 몰리면서 언제나 매진된다”고 말했다.

자치구마다 소극장 날마다 시민출연 공연

문화진흥사업단 주도 문화 통한 도시개조

‘문화사업’ 360개 프로그램 시민참여 유도

또 문화소극장에서는 지역에 뿌리를 둔 학생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노인들에게는 집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 콘서트를 하기도 하는 등 주민들과 ‘친근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사업단의 장점이다.

나고야 시로부터 인건비 3억엔(보조금 형식) 포함해 26억엔을 지원받고 있으나 도모노카이(友の會) 즉 친구모임을 운영해 개인 및 단체회원을 모집해 자체자원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어 회원은 매년 늘고 있으며 개인은 연회비 3천엔, 법인은 5만엔을 납부하면 나고야시 주최 문화행사의 티켓을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매달 20여 개에 달하는 문화예술정보 소식지를 우편으로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다. 소식지는 인터넷에도 제공되지만 친구모임 가입자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층이기 때문에 인터넷보다는 직접 받아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을 감안, 우편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열리는 나고야시 니시구 소극장에서 열리는 책 교환 행사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주민들. 주부와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빨간 벽돌의 옛 공장 전경을 그대로 간직한 노리다케모리 전경

나고야의 관광명소 노리다케모리

요업공장 터 공원 조성...매년 40만명 찾아

노리다케모리(ノリタケの森)는 일본 최대 요업업체 ‘노리다케사’가 자사 공장 터를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한 공간이자 나고야의 유명 관광명소다.

모리무라 형제가 1904년 설립된 노리다케사는 1970년대 중반부터 산 지가와 노동력을 찾아 일본 규슈 및 스리랑카, 필리핀 등지로 생산 공장을 이전하면서 나고야의 공장은 폐쇄 직전에 몰렸고 1990년대 후반 노리다케사가 공장 부지에 25억 엔을 투자해 공원으로 조성해 2001년 문을 열었다. 4만8000㎡에 이르는 방대한 면적에 JR(Japan Rail) 나고야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등 입지가 뛰어나 매년 4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다. 노리다케 공원은 공장 건물과 45m짜리 굴

뚝, 1904년 창립 첫 해 첫 제품을 구워낸 가마 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컬처존, 뮤지엄, 회사 역사관, 갤러리, 판매점, 카페, 분수광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배치돼 있다.

노리다케모리는 산업 현장의 흔적을 공원으로 조성해 산업관광의 전형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지역 내 북구 임동에 자리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건물의 활용방안에도 참조할 만하다.

노리다케모리 운영기획 담당자 나카이 히로미씨는 “노리다케 공원은 운영상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업의 자산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것이 사실 기업의 홍보 효과로 되돌아 오고 있다”고 말했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0,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moviehelic 따뜻한 봄날 즐거운 영화함 함께 하세요

Advertisement for '마이블랙미니드레스' (My Black Mini Dress) movie, featuring a photo of the main cast members.

Movie listings for Columbus Cinema (상무점 and 하남점) with showtimes and prices for various movies like '마이블랙미니드레스', '위험한 상견례', and '월드인베이션'.

Advertisement for '씨커펀치' (C Kick Punch) movie, featuring a photo of the main cast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MEGABOX cinema with a list of movies and showtimes, including '씨커펀치', '나이름은 칸', and '라스트나잇'.

Advertisement for '킹스스피치' (The King's Speech) movie, featuring a photo of the main cast and showtimes.

Advertisement for CINUS cinema with a list of movies and showtimes, including '라스트나잇', '킹스스피치', and '마이블랙미니드레스'.